



정아현 중학교 3학년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날씨 흐림 ☁

제목: 기후위기가 인간위기다 (글래스 E, 조천호 박사편) 조천호의 기후위기. 거대한 전환

내용: 기후위기를 벗어나려면 큰 변화가 필요하다. 동양에서는 1년을 24절기로 나누는데 이 '절기'에서 기후가 유래된 것이다. (기후에서 기는 15일, 후는 5일을 의미한다.) 즉, 동양에서는 계절을 변동시키는 단위를 5일로 보았다. 기후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Klima라는 고대그리스의 단어에서 Climate (기후)가 유래되었다. Klima는 기둥기를 의미하는데 태양의 고도각에 의해 좁거나 더워진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다. 날씨와 기후의 차이는 무엇일까? 날씨는 그 날 하루 춥고, 맑고, 덥고... 등을 나타낸 것이고, 기후는 30년을 평균 내 기록한 상태인데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날씨는 기분, 기후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가 변화해서는 안 되고 이는 곧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날씨와 기후는 인간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96년 스반테 아레니우스는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혀냈다. 대류권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여나가게 되면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의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느렸다. 식단을 바꾸면 흡연이라는 것이 생기는 데 이것이 책임을 차단하여 기후변화를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야 본격적으로 기후위기의 모순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8년 IPCC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가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는 과학자들로 연구하여 기후변화 보고서를 써내고 있다.

기후위기

기후위기의 위험성 바로 알기

어떻게 대응?

위의 글은 오늘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본 것이다. 평소 학교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배운 적이 많았지만 이렇게 정리해보며 영감을 시청해보니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더 잘 알수 있었고 위험성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 몇날에는 기후변화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믿었다고 한다. 춥고 차가운 겨울이 따뜻해지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그 위험이 점점 강해지며 1980년대에야 비로소 기후위기의 부각음이 울려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도, 나는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단게 잘 느껴진다. 이 속도로 간다면 나중의 지구 모습은 어떻게 될지 정말 무섭고 두려워진다. 하루빨리 세상이 바뀌어 기후위기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청소년이 해낼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방법을 생각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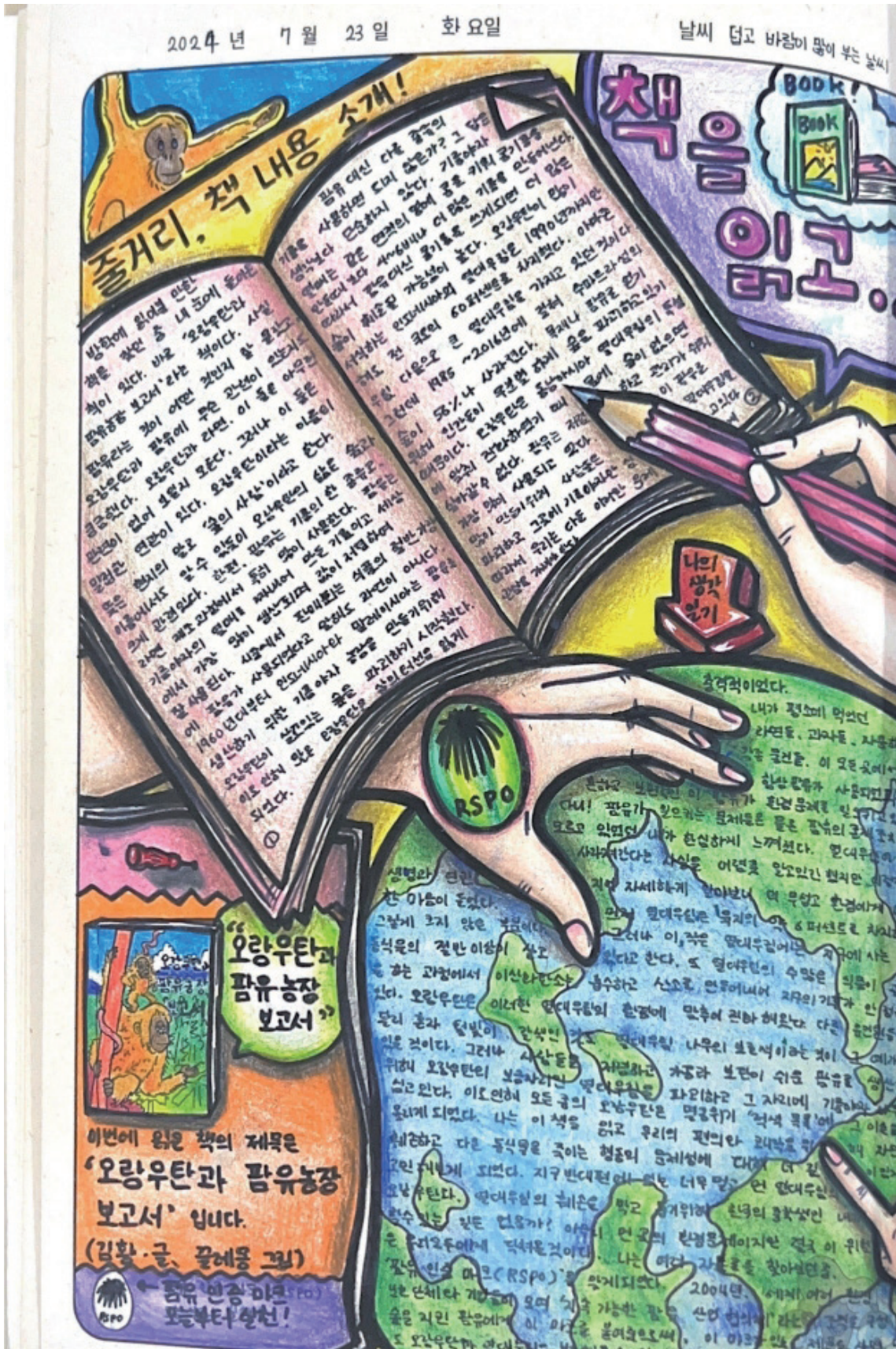


- 우리는 아직 사회의 정착도와 같은 큰 변화는 일으키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소소하지만 모이면 큰 걸음이 될 실천 등을 통해 지구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 또 이런 의식과 생각이 가지고 왔던 어른이되어 지구를 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소소하지만 지구를 돕고자하는 작은 실천들, 조금씩이라도 해야겠다!
- 양치할때 권 사용하기
 - 스프레이는 반대 사용하기
 - 탈의물 줄이기 대신 에코백 사용하기
 -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사용하기
 - 아열, 저열 분리할때
 - 샤워할때는 전기계를 전원 끄기
 - 미디어면 대신 유튜브 사용하기
 - 차가운 음료 대리기





정아현 중학교 3학년





2024년 8월 7일 수요일 날씨 덥고 햇빛이 강함 ☀

플로깅 → 조깅 + 쓰레기 줍기!

플로깅을 하는 이유가 뭐야?

적어도 내가 지나간 길은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플로깅을 하는 이유입니다.

플로깅이 무엇일까?

처음 플로깅이라는 이름을 듣고 의아해 했다.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다. 산책을 한다고 생각하고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란다! 기쁘고 재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차를 모아, 공성과 플로깅을 해하기로 했다!!

플로깅 실천하기



우리집 근처에는 길고 큰 산책로가 있다. 평소 강아지와 자주 산책을 하던 길인데 갈 때마다 항상 과자봉지나 비닐봉투, 휴지, 사탕껍질 등 온갖 쓰레기가 있었다. 물론 청소로 해주는 분들이 계시지만 역부족인듯했다. 우리(나와 동생, 엄마)는 커다란 봉지와 긴 길게 3개를 챙겨 산책로로 갔다. 도착하자마자 아이스크림 포장지 쓰레기를 발견했다. 나는 길게로 쓰레기를 집어 봉지에 넣었다. 산책로는 등산로도 이어지는데, 우리는 쓰레기가 반쯤이나 찬 봉지를 가지고 등산로도 오기 시작했다. 등산로에서 스티로폼 도시락그릇과 칼이랑, 나무젓가락 등 총 12가지의 쓰레기를 더 줍는다. 플로깅으로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하게되니 일석이조였다. 동생은 귀찮고 힘들다고 투덜대다가도 쓰레기가 많이 오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더 열심히 쓰레기를 줍는다. 2시간 가까이 플로깅을 하고 쓰레기를 잘 버렸다.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플로깅을 하면서 산책로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질것같다. 많은 사람들이 플로깅을 많이 귀찮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야?, 내가 쓰레기 많이 줍는다고 칭찬이 안될까? 하며 많이 물어보았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적어도 내가 지나간 길은 깨끗해질거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플로깅을 하면...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날씨 습함 4

30년 후 나에게..

Yo. 30년 후 나에게

안녕? 미래의 나야, 지금 이 편지를 열고 있다는 건 넌 벌써 지금으로부터 30년이나 지난 후의 나겠구나. 잘지내고 있길 바라 이 편지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쓰게 되었단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했어. 지구의 기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함께 살아가야 할 다양한 생물들이 하나 둘 지구를 떠나고 있어. 한 종이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니.. 지금 생태계는 정말 많이 파괴되었지.

그 뿐만이겠어? 대기오염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고 토지가 오염되어 아무것도 이나 쉽게 먹을 수도 없어. 바다는 점점 더러워져서 해산물을 먹기도 다들 겁내고 있고 말야. 그래서 학교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둘씩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물론 나도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고 심각성을 더 깨달게 되었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환경보호 운동을 하기도 해. 사막에는 나무를 심고, 해안보존 운동을 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고, 재활용을 하고, 생물을 연수에 보존하고.. 다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색이니? 무슨 자연의 색? 인간들의 색? 인간이 만든 문명의 색으로 지구가 뒤덮혀 버린 건 아니지? 꼭 너에게 묻고 싶었어. 우리들의 노력이 환경에 보탬이 되었는지, 그리고 너가 사는 미래의 그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환경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말아야. 앞으로 내가 계속 환경보존에 대해 잘 행동할 거라고 믿어. 이 편지를 통해 30년 후인 너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는지도 돌아봐 주길 바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길 바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의 미래를 기대할게.

2024. 08. 10
-과거의 내가





최우수상

정아현 중학교 3학년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날씨 덥고 짹짹 ☀

"국내도 '멸종위기 진행형'... 400종까지 늘수도"

2024. 08. 02 김정욱 기자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계절성 폭우가 자주 늘었고 기온이 변하고 있다. 원인과 같은 이것들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환경오염이다. 멸종위기종으로 생물종의 멸종이 특히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동안

2020 이후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인간에 의해 나타날 것이라 경고한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어류 등 야생동물 개체군이 전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평균 69%나 감소

우리나라에서 2002년 기준 282종의 야생동물이 멸종위기로 지정되었으며 400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한 글자가 멸종하면 그 글에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연쇄반응을 일으켜 인류의

삶을 위협한 것이다. 그 예로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멸종한다'는 것만 해도 들 수 있다. 꿀벌은 식물의 수분을 담당해 인간의 식량인 곡물의 공과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러나 이런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 생산은 감소시키고,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의 야생벌 수는 4분의 1로 줄었고, 우리나라의 도둑벌도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생물의 멸종을 막는 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 일반 시민들이 쉽게 실천 가능한 자원 절약은 물론 생활속 환경보존 활동, 지속가능한 소비 실천, 멸종위기종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 인지 및 알리기, 동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 등이 필요하다. 또 최근 희귀한

으로 불법 포획하거나 밀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런 동물은 사육목적인 인간의 목적으로 생태계를 망쳐서는 안된다. 옛날에는 자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멸종위기종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멸종된 동물이다. 이렇듯 많은 생물종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쇠뿔소가 멸종되었다니,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마지막엔 아무 종도 남지 않을 것 같아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환경은 더럽힌 우리가 걱정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미래에는 모든 생물이 다시 번성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더 이상 인간에 의해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생물표아 대안해!! 우리가 달라질게, 오래도록 남아 있어주렴!! ♡





정아현 중학교 3학년



